

敬齋箴圖와 퇴계의 居敬修養論**

琴 章 泰*

• 目 次 •

- | | |
|----------------|-----------------|
| I. 문제의 性格 | IV. 不敬의 病狀과 치료 |
| II. 持敬의 원리와 구조 | V. 맺는말-특성과 意義 |
| III. 敬의 실천 | |

I. 문제의 性格

‘敬’의 문제는 주렴계가 <太極圖說>에서 ‘主靜’을 제시한 데 대해 정이천이 ‘主敬’을 제시하면서 제기되고, 주자가 이를 계승하면서, 宋代 道學의 학문방법론(爲學論)내지 수양론의 중심개념으로 확인되어 왔다.¹⁾ 퇴계 이황에 있어서도 수양론적 학문방법론의 핵심개념은 ‘敬’으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이치의 탐구’[窮理: 학문방법]와 ‘敬의 실천’[居敬: 수양론]을 서로 머리와 꼬리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상호발전시키는 유기적 관계임을 밝히고, 이 둘은 이원화시킬 수 없음을 지적함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68호(1990) 게재논문

1) <增補退溪全書>, 권33, 21b, 제2책, 182쪽, 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원, 1971, (以下 ‘<퇴계>, 33-21b (2-182)’로 略記), ‘答吳子強’, “說靜不若說敬, 程先生已言之.” 退溪는 ‘敬’이 宋代道學에 앞서서 上古에서 부터 계승된 개념임을 지적하여, 堯의 ‘欽明’, 舜의 ‘兢兢’, 湯의 ‘聖敬’, 武王의 ‘敬勝’, 孔子의 ‘行篤 敬’과 ‘修己以敬’을 모두 敬의 전통으로 확인한다.(<퇴계>, 37-29b~31b (2-259~60), ‘答李平叔’)

으로써 학문방법론과 수양론을 통합시키고 있다.²⁾

퇴계는 자신의 대표작인 <聖學十圖>에서 ‘敬’의 수양론을 시작에서 끝까지 관철하는 자신의 학문체계를 응축하여 하나의 순수한 결정체를 이루었다. 그는 <聖學十圖>를 宣祖임금에게 올리는 筭子에서 “이 十圖는 모두 敬을 위주로 한다.”고 밝혔으며, <聖學十圖>의 제9도로 실은 ‘敬齋箴圖’에서는 “敬이 聖學의 시작과 끝이 된다.”는 宣祖의 언명을 재확인하고 있다. ‘敬齋箴圖’는 주자가 지은 ‘敬齋箴’과 여기에 붙인 魯齋 王柏의 圖示이므로, ‘箴’과 ‘圖’의 어느 쪽에도 퇴계가 직접 저작한 부분이 없다. 그렇지만 퇴계는 <聖學十圖> 속에 이 ‘箴’과 ‘圖’를 수록하고, 여기서 제시된 敬의 실천방법과 원리를 그 자신의 수양론과 학문방법론에서 일관하게 관철하고 발휘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敬齋箴圖’는 퇴계의 수양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본틀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敬齋箴’은 전체 10章인데, 章마다 4句요, 句마다 4言으로 되어 있으니 모두 160字인 짧은 箴言이다.³⁾ 주자는 南軒 張栻의 ‘主一箴’을 읽고 같은 취지로 이 箴을 지어 자신의 書齋 벽에 써 붙여 自警의 자료로 삼

2) <退溪>, 14-18b (1-369), ‘答李叔獻’, “惟十分勉力於窮理居敬之工, 二者, 雖相首尾, 而實是兩段工夫, 切勿以分段爲憂, 惟必以互進爲法, 勿爲等待.”

1. 正其衣冠, 尊其..視, 潛心以居, 對越上帝	— 靜	} 弗違
2. 足容必重, 手容必恭, 擇地而蹈, 折旋蟻封	— 動	
3. 出門如賓, ..事如祭, 戰戰兢兢, 罔敢或易	— 表	} 交正
4. 守口如瓶, 防意如城, 洞洞屬屬, 罔敢或輕	— 裏	
5. 不東以西, 不南以北, 當事而存, 靡他其適	— 無適	
6. 弗貳以二, 弗參以三, 惟心惟一, 萬變是監	— 主一	
7. 從事於斯, 是日持敬, 動靜弗違, 表裏交正	— * *	
8. 須臾有間, 私欲萬端, 不火而熱, 不冰而寒	— 有間	
9. 毫..有差, 天壤易處, 三綱既淪, 九法亦..	— 有差	
10. 於乎小子, 念哉敬哉, ..卿司戒, 敢告靈臺	— * *	

왔던 것이다. 주자 자신과 그 이후로 ‘敬齋箴’의 내용과 기본취지에 대해 깊은 관심 속에 토론이 일어나고 그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⁴⁾ 주자는 이箴의 전체적 성격을 규정하여 “敬의 조목을 설명한 것으로, 여러가지 자리[地頭去處]가 있다.”고 밝혔으며, 王柏의 ‘敬齋箴圖’에서는 弗違[動·靜]: 交正[表·裏]과 有間: 有差를 상하로 대응시키고, 主一: 無適을 좌우로 대응시키고 있다. 이를 上段 [弗違: 交正]-中段[主一: 無適]-下段[有間: 有差]의 3단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上段은 敬의 올바른 실천이요, 中段은 敬의 원리이며, 下段은 敬의 실천을 상실한 病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吳澄은 ‘敬齋箴’ 10章의 구조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한다.

- (1) 靜無違 : (2) 動無違-動과 靜[無違]
- (3) 表之正 : (4) 裏之正-表와 裏[正]
- (5) 心之正而違於事 : (6) 事之主一而本於心-心[違於事]과 事[本於心]
- (7) 總 前6章-종합[持敬: 動靜: 表裏]
- (8) 心不能無適之病 : (9) 事不能主一之病-心之病[適]과 事之病[不一]
- (10) 總結一篇.

吳澄의 분석에 따르면서 좀더 크게 보면 세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動靜과 表裏의 올바름을 실현(1-4章)하는 것으로서, 敬의 실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나) 心과 事의 바른 관계를 확립(5-6章)하는 것으로서, 敬의 기본원리와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라

4) 眞德秀가 편집한 <心經>에 수록되고 程敏政의 <心經附註>에는 朱子의 해명과 北溪 陳淳, 勉齋 黃幹, 西山 眞德秀, 臨川 吳澄의 해석이 수록되어 있다. 퇴계의 敬사상은 ‘敬齋箴’과 연관시켜서 조선후기에 영남학파의 大山 李象靖에 의해 <敬齋箴集說>이 편집되면서 程, 朱와 퇴계의 敬說이 ‘敬齋箴’의 체계에 따라 편찬되어 있으며, 韓末 朴宗奭가 편찬한 <言敬撮要>(혹은 <兩先生言敬撮要>)에서는 朱子와 퇴계 각각의 敬說이 수집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다) 心과 事의 그릇된 病을 진단(8-9章)하는 것으로서, 敬을 상실한 마음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계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퇴계의 居敬을 핵심으로 하는 수양론의 이해를 위해 ‘敬齋箴’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1) 敬의 원리와 (2) 敬의 실천방법 및 (3) 失敬의 病狀에 대한 진단과 치료방법의 3단계로 그 기본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持敬의 원리와 구조

宋代 성리학자들은 “마음이 몸을 主宰한다”는 心身관계를 인식하며, “敬이 마음을 主宰한다”는 마음의 自己主宰性을 파악한다.⁵⁾ 여기서 마음과 몸은 존재영역이 다르지만 그러나 敬은 마음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敬은 다만 흩어지기 쉬운 가능성을 지닌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일치시키는 힘이므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이러한 敬은 인간의 마음을 수렴하여 통제하는 마음자체의 조건이며, 곧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각성시키고 통일시키는 원리로 이해된다.

이 ‘敬’은 활동하기 이전의 고요할 때[靜]와 활동할 때[動]를 포섭하여 일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靜은 動에 대응되는 개념이지 敬과 靜을 대비시켜 動·靜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⁶⁾ 곧 敬은 動靜을 일관하여 인간의 의식이 ‘일치되어 분산되지 않음[主一無適]’의 원리로 파악된다.

敬의 기본개념으로써의 主一無適은 ‘밖으로 嚴肅하며 속 마음이 일치

5) <性理大全>, 권32, “北溪 陳氏曰, 心者, 一身之主宰也.” 같은 책, 권47, “北溪 陳氏曰, 敬者, 一心之主宰, 萬事之根本.”

6) <퇴계>, 37-28b (2-259), ‘答李平叔’, “敬自兼動靜, 不當與靜對分動靜, 靜則雖本, 是對動之名.”

된 것'이라 정의된다. 이 主一無適은 ① '그 마음을 收斂하여 한 사물도 마음에 용납하지 않는'[收斂身心] 마음의 집중상태나, ② '항상 깨어 있음'[常惺惺法]의 방법 및, ③ '엄숙한 마음과 가지런한 모습'[整齊嚴肅]의 실천형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한다.⁷⁾

퇴계는 敬의 개념적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본구조를 動·靜, 體·用, 內·外, 始·終, 居敬·窮理 등의 상응관계 내지 일치관계로 분석하여 해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整齊·嚴肅과 動·靜[體·用]의 대응구조: 그는 고요할 때의 '엄숙한 마음'[嚴肅]을 본체로 하고, 활동할 때의 '가지런한 모습'[整齊]을 응용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整齊嚴肅'을 敬의 '靜-嚴肅-體'와 '動-整齊-用'로 연관되는 體用구조로 제시한다. 이때 현상적으로 敬의 '動·靜' 혹은 '體·用'은 마음의 體用に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임을 지적한다. 동시에 敬의 動·靜과 體·用은 지속적인 실천과정을 통하여 원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성취결과로서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한다.⁸⁾

(2) 操存[存養, 涵養]·省察과 動·靜[未發, 已發]의 대응구조: 動·靜에 대응하여 각각의 자리에 따라 敬의 과제로서 操存[存養, 涵養]·

7) <퇴계>, 29-13b (2-93), '答金而精', "外嚴肅而中心一, 則所謂主一無適, 所謂其心收斂, 不容一物, 所謂常惺惺者, 在其中." 여기서 '主一無適'은 程伊川이 "所謂敬者, 主一之謂敬, 所謂一者, 無適之謂一"라 한 말을 朱子가 결합시켜 쓴 용어이고, '常惺惺法'은 上蔡 謝良佐가 "敬是常惺惺法"이라는 말에서 나오며, '收斂身心'은 和靖 尹淳이 "敬有甚形影, 只收斂身心, 便是主一"이라는 말에서 썼고, '整齊嚴肅'은 朱子가 "程子言敬, 必整齊嚴肅. 正衣冠, 尊瞻視爲先"이라 하거나, 주자에게 질문자가 "和靖論敬, 以整齊嚴肅, ---上蔡云, 敬是常惺惺法"이라 한데서 나타나고, 주자가 "持敬之說, 不必多言, 但熟味 '整齊嚴肅, 嚴威儼格. 動容貌. 整思慮. 正衣冠. 尊瞻視' 此等數語, 而實加工焉"이라는 말에서 나온다. <성리대전>, 권46, '持敬' 참조.

8) <퇴계>, 36-18 (2-234), '答李宏仲', "靜而嚴肅, 敬之體也, 動而齊靜, 敬之用也, --- 敬之體用, 因心而見, 則可, 若謂---敬之體用, 則心之體用, 則不可." <퇴계>, 28-76a (2-76), '答金而精', "須是兩致其功, 熟之又熟, 而至於動靜一, 體用合, 方爲究竟處耳."

省察이 구별되어 인식되고 있다. 곧 敬은 의식이 “고요한데서[靜] 마음을 간직[操存]하면 어둡지 않고, 활동하는데서[動] 살피면[省察] 섞이지 않는다”는 操存·省察의 動靜구조를 제시한다.⁹⁾ 나아가 靜은 ‘의식이 발동하기 이전[未發: 寂]으로 보고, 動은 ‘의식이 발동한 이후[已發: 感]로 파악함으로써, 그 未發의 경우는 ‘경계하여 삼가하며 두려워하는 자리[戒愼恐懼之地]로, 已發의 경우는 ‘몸으로 살피고 정밀하게 살피는 때[體察精察之時]로 지적하기도 한다.¹⁰⁾

(3) 敬·義와 內·外(動·靜)의 대응구조: “敬으로 마음속을 곧게 하고, 義로 바깥을 반듯하게 한다”[敬以直內, 義以方外 <周易>]는 구절에서, 敬[內]과 義[外]를 상대시켜 보면, 敬[靜]·義[動]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敬과 義를 겸하여 지닐 것[敬義夾持]을 강조한다. 그러나 敬을 중심으로만 보면 敬이 動·靜, 顯·微, 內·外를 일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¹⁾

(4) 敬의 知·行 일관구조: 퇴계는 知와 行의 문제를 知行互進說에 입각하여 서로 先·後를 이루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知와 行은 서로 敬의 始·終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해명한다. 퇴계는 知·行을 수레의 두 바퀴나 새의 두 날개처럼 서로 先·後가 되고 輕·重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용>의 ‘存心[先行後知說의 입장]이나 <대학>의 ‘誠意’ 내지 <맹자>의 ‘存心[先知後行說의 입장]이 서로 敬의 成始·成終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²⁾ 여기서 퇴계는 敬이 수양과 학문을 통합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관철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인

9) <퇴계>, 10-23a (1-293), ‘答盧寡悔 別紙’, “必以敬爲一心主宰, 方能靜而操存, 不昧於虛寂不用之處, 動而省察, 不雜於幾微運行之時.”

10) <퇴계>, 19-39b~41a (1-486), ‘答黃仲舉’, “寂然而靜, 卽所未發也, ---感通而動, 卽所謂已發也, 未發則爲戒愼恐懼之地, 已發則爲體察精察之時.”

11) <퇴계>, 36-15a (2-233), ‘答李宏仲’, “敬以直內對義以方外, 則敬靜義動, 單言, 則與必有事焉, 皆當貫動靜, 一顯微, 徹內外看.”

12) <퇴계>, 21-25b~26a (1-521), ‘答李剛而’, “自始知至, 知至至之, 始行至, 知終終之, 貫徹相資而互進也, 中庸之存心, 豈獨謂成始之敬乎, 大學之誠意, 孟子之存心, 豈獨謂成終之敬乎.”

식과 행위를 관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對言[居敬 對 窮理]과 敬의 兼言[敬兼 居敬·窮理] 관계: 퇴계는 “存心端坐하는 때는 居敬이요, 讀書에 義理를 思索하고 處事에 當否를 추구하는 것은 窮理”라고 분별하는 薛瑄(文清)의 입장을 ‘對言’으로 보고, “靜中에 存心端坐하지만 動處에도 더욱 이를 힘쓰는 것을 敬”이라 파악하는 禹性傳의 입장은 ‘敬으로 兼言’하는 것이라 지적한다.¹³⁾ 퇴계는 格物과 持敬의 사이에서도 敬을 철두철미한 것이라는 인식 위에서, “진실로 持敬의 방법을 알면 이치는 밝아지고 마음은 안정하게 되며, 敬으로써 格物하면 만물이 나의 살펴봄을 벗어날 수 없고, 敬으로써 사물에 대응하면 사물이 마음에 누를 끼칠 수 없다.”¹⁴⁾고 지적한다. 이처럼 그는 敬으로 관철시킴으로써, 格物과 持敬 사이에 어느 것이 어렵고 어느 것이 쉽다고 구별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한다. 그는 敬을 動·靜과 窮理·居敬을 관철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窮理를 말하지 않고 다만 ‘敬’字만 지키면 한쪽으로 치우친 데 빠지는 것으로 경계하여, 居敬과 窮理 사이에 균형있는 상호보완적 인식을 하고 있다.¹⁵⁾

III. 敬의 실천

敬은 학문과 수양의 원리나 법칙에 머물지 않고, 학문과 수양의 구체적 실천방법이요 실천기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퇴계는 주자의 ‘敬齋箴’이 動靜·表裏와 主一·無適을 모두 갖추어 있는 것으로 이들 사이에

13) <퇴계>, 32-14b~15a (2-159~60), ‘答禹景善問目’, “問: 如存心端坐之時, 此居敬也, 或讀書而思索義理, 或處事而求其當否, 則窮理也, 此薛文清語也, ---性傳竊意, 靜中易爲力, 動處難爲功, 學者, 靜中固當存心端坐, 而動處尤當致力, 遇事{道-首+言}事, 而心在在{道-首+言}事, 遇那事, 而心在那事, 然後可謂敬矣. 曰: 以居敬窮理對言, 則如此說, 以敬兼知行貫動靜言, 則如公說.”

14) <퇴계>, 28-7 (2-64), ‘答金惇弼’, “蓋敬者, 徹頭徹尾, 苟能知持敬之方, 則理明而心定, 以之格物, 則物不能逃吾之鑑, 以之應事, 則事不能爲心之累.”

15) <퇴계>, 29-16a (2-94), ‘答金而精’, “不言窮理, 而徒守敬者, 陷於一偏.”

어느 것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강조하며, 그 힘써야 할 요령은 말씀의 취지와 의리가 있는 곳을 따라서 반복하여 그 맛을 연마하여 실지로 체험하고 행하는 것이라 지적한다.¹⁶⁾ 여기서 敬의 실천은 動·靜과 表·裏의 국면으로 분석될 수 있다. 곧 시간적 차원에서 인간존재가 활동하고[動], 고요한[靜] 사이에 잠시도 어긋남이 없도록[弗違] 요구하며, 동시에 공간적 차원에서 인간행위의 밖으로 나타나는 겉[表]과 인간마음의 내면세계인 속[裏]이 상호 연관관계 속에 서로 바르게 할 것[交正]을 요구한다.

(1) 動·靜의 敬: 퇴계에 있어서 敬은 靜적인 영역에 근본을 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아가 動的인 세계에도 드러남으로써, 本과 末 내지 動時와 靜時를 포함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¹⁷⁾ 곧 그는 敬을 행동하기 이전의 고요함[靜]이나 행동으로 나타난 이후의 다양한 활동[動]에 일관되게 적용시키면서, 고요할 때 두려워하고 삼가하며 성품[天理]을 함양함과, 활동할 때 人欲을 분별하여 성찰함의 양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퇴계는 程子が 敬을 설명하여 ‘우과 갓을 반듯하게 함’[正衣冠], ‘생각을 하나로 모음’[一思慮], ‘엄정하게 정돈하고 엄숙히 함’[莊整嚴肅], ‘속이지 않고 대만하지 않음’[不欺不慢]일 뿐이라고 설명한 것을 動時와 靜時로 분석하면서, ‘正衣冠과 莊整嚴肅’은 靜에서 말한 것이요, ‘一思慮와 不欺不慢’은 動에서 말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동시에 動과 靜이 분리되지 않는 연속성을 확인하고 있다.¹⁸⁾

퇴계는 “일이 없을 때[無事時]에는 마음을 간직하고 성품을 기르며 [存養]항상 깨어 있을 것[惺惺]이요, 강론 학습하며 사람을 상대할 때

16) <퇴계>, 35-39b (2-225), ‘答李宏仲’, “朱子敬齋箴, 動靜表裏主一無適, 備舉而言之, 安有取舍於其間哉, 而用力之要, 則亦當各從其語旨義之所在, 反覆研味, 而實體行之.”

17) <退溪先生言行錄>, ‘學問’, 2-12b(4-28), “莫如主靜而立其本.” <퇴계>, 44-1b (2-387), ‘靜存齋箴’, “靜以立本, 敬貫本末.”

18) <퇴계>, 35-39b (2-225), ‘答李宏仲’, “靜時此心, 尤不可不主於一本, 又豈容有一毫欺慢乎.”

[講習應接時]에는 義理를 헤아린다.”하여 動時와 靜時에서 敬의 양상을 구별하면서도, 靜時에 생각하지 않다가 動時에 헤아리면 사물을 좇아가서 義理에 있지 않게 됨을 지적하여 主敬이 動·靜을 통관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⁹⁾ 그는 “고요할 때 天理의 本然을 함양하고, 활동할 때 幾微에서 人欲을 갈라낼 것”을 動時와 靜時에서 敬의 공부방법으로 제시하며, 여기서 ‘진실하게 쌓아가며 오래도록 힘써서[眞積力久] 순수하게 익히면[純熟], ‘고요할 때 비고, 활동할 때 곧은[靜虛動直] 敬의 마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한다.²⁰⁾

퇴계는 靜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여, 蘭溪 范浚이 ‘至靜’을 말한 데 대해서 “마음이 神明하여 헤아릴 수 없고, 變化에 두루 유행하는 것이므로 잡아서 간직[操存]하면 靜이요, 버려서 흩어지면 昏이라.”하여 靜과 昏을 구별하면서, 實心으로 變化에 대응하지 않으면 操存[靜]만으로는 준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그는 居敬의 입장에 서서 靜安의 효과를 인정하지만 이것만으로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²¹⁾ 따라서 그는 敬이 動·靜을 관통하는 것이므로 靜을 말하는 것만으로 자족하여서는 안되는 것임을 경계하면서도, 주립계의 主靜說이 지닌 의미는 “聖인이 動·靜의 德을 온전히 하면서도 항상 靜에 근본함을 말한 것”이라 해명한다. 또한 程子가 “배우는 이들이 분잡하고 동요되는 일이 많음을 염려하여 靜坐의 취지를 발휘하였음”을 지적하며, 이에 비해 南軒 張栻은 “敬이 곧 主靜의 뜻임을 알아 오로지 敬에서 主靜의 맛을 깨닫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²²⁾

敬의 실천양상으로서 動時와 靜時를 구분하면, 靜時的 敬으로서 퇴계

19) <퇴계>, 14-20b (1-370), ‘答李叔獻’, “靜時不思, 便認以爲窈冥寂滅, 動時思量, 又胡亂遂物去, 都不在義理上.”

20) <퇴계>, 28-19b (2-71), ‘答金惇敍’, “靜而涵天理之本然, 動而決人欲於幾微, 如是眞積力久, 至於純熟, 則靜虛動直.”

21) <퇴계>, 12-43b (1-345), ‘答崔見叔問目’, “靜安之效, 雖則然矣, 徒守此一語, 亦不濟事.”

22) <퇴계>, 37-29b (2-260), ‘答李平叔’, “學者當求, 南軒何以知敬即主靜之意, 又當求, 南軒所以能專力於敬字上, 如何而覺主靜之有味.”

는 특히 靜坐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곧 앉는 자세에 있어서도 몸과 마음을 수렴하여 ‘엄숙하고 가지런하게’[齊莊整齊] 한다면 책상다리로 편히 앉는 것[盤坐]이 무릎꿇고 앉는 것[危坐]의 엄숙함만은 못하더라도 의리에 해롭지 않은 것이라 확인한다. 그만큼 그는 고요하고 엄숙한 모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마음의 수렴과 고요한 자세가 결합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盤坐는 正坐 혹은 端坐와 통용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尸童처럼 앉는 것은 단지 가지런히 하여 공경하는[齊敬] 모습일 뿐이라 밝히고 있다.²³⁾ 또한 延平 李侗의 靜坐說에 대해 퇴계는 “靜坐한 다음에 身心을 수렴하니 道理가 모여드는 곳이요, 신체를 풀어 놓아 태만하여 검속함이 없으면 身心이 혼란하여 道理가 다시 모여들 곳이 없다.”²⁴⁾고 밝혀 그의 수양론에서 활동과 일관성 속에서의 고요함의 중요성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動時의 敬으로써 퇴계는 글씨쓰기[寫字]의 예를 들고 있다. 程明道가 글씨 쓸 때에 매우 공경하였던 사실에서, 글씨의 좋고 나쁘고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글씨쓰기에 공경할 뿐임을 지적한다. 그는 글씨는 재주와 노력에 따라서 스스로 나아가는 바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孟子的 “반드시 일삼음이 있으되, 바르게 하고자 하지도 말고, 잊지도 말며, 억지로 키우려고도 말라.”는 뜻이요, 글씨에서만 아니라 모든 행동에서 이러한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주자는 “하나[一]가 그 속에 있으나, 點마다 劃마다 방심하면 황폐해지고, 곱게 꾸미고자 하면 미혹된다.”라 고 한 말에서, 그 하나가 곧 敬임을 지적한다.²⁵⁾ 이처럼 퇴계는 모든 크고 작은 행위에서 主一의 敬으로 일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表·裏의 敬: 퇴계는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視·聽·言·

23) <퇴계>, 28-24b (2-73), ‘答金惇紱’, “蓋能收斂身心, 齊莊整齊, 則有時盤坐, 雖不如危坐之嚴肅, 自不害義理.”

24) <퇴계선생언행록>, 2-22a (4-33), ‘鶴錄’, “靜坐然後, 身心收斂, 道理方有湊泊處.”

25) <퇴계>, 28-20 (2-71), ‘答金惇紱’, “字之工拙, 隨其才分工力, 而自有所就耳, 此卽有事焉, 而勿正.心勿忘.勿助長之見於事者, 乃聖賢心法如此, 不獨寫字 爲然也.”

動] 활동이나 ‘용모와 말씀하는 기세’[容貌·辭氣] 등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은 바깥을 통제하여 마음 속의 성품을 기르는 방법임을 확인한다.²⁶⁾ 敬의 실천은 내면에 마음과 의식을 지키고 신중하게 하며, 겉으로 사람과의 만남이나 일에 당면하여 조심하여 소홀하지 않음에서 나타난다. 이때 바깥의 모습과 속의 마음은 서로 작용하여 바르게 하는 일치관계로 파악된다. 여기서 겉으로 드러난 활동[視·聽·言·動]이나 모습[容貌·辭氣]에서는 외형적 기준인 規矩와 繩墨으로 지키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속으로 마음[無形影出入無時者]을 지키는 도리를 찾게 된다. 따라서 ‘형체와 그림자가 없는’[無形影] 마음을 지키고자 하면, 반드시 ‘형체와 그림자가 있어서’[有形影] 의거하여 지킬 자리로부터 이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예를 顏子の ‘四勿’이나 曾子の ‘三貴’에서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마음이 尺度[規矩와 繩墨]에 나아가서 지키면 곧 안팎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라 본다. 이것이 곧 日用工夫의 지극한 要約處로서, 안팎이 일찌기 서로 떠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이른바 ‘가지런하고 엄숙함’[莊整齊肅]으로써 마음을 간직하는 방법임을 인식한다. 이에 따라 수양의 과정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볼 수 있고 지키기 쉬운 방법’[可見易守之法]에 의해 속으로 ‘보이지 않고 묶어 두기 어려운 마음’[不可見 不可係之心]을 배양할 것을 제시하고, 이러한 수양을 부지런히 지속시켜가면 ‘겉과 속이 일치하여’[表裏如一] 사사로운 의사가 용납되지 않게 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²⁷⁾

그는 공경함으로써 속으로 깊고 두텁게 성품을 함양하고, 겉으로 사람과 일에 應接할 때에 가볍게 지나치지 않으며, 이를 계속해가서 익숙

26) <퇴계>, 31-2a (2-130), ‘答禹景善’, “觀顏子四勿, 曾子三貴, 從視聽言動 容貌辭氣上做工夫, 所謂制於外, 所以養其中也.”

* 顏子の ‘四勿’-- “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論語, 顏淵>

* 子の ‘三貴’-- “動容貌, 斯遠暴慢矣, 正顏色, 斯近信矣, 出辭氣, 斯遠鄙倍矣.”

<論語, 泰伯>

27) <퇴계>, 29-12a (2-92), ‘答金而精’, “蓋人心無形, 出入不定, 須就規矩繩墨上守定, 便自內外帖然, 此日用工夫至要約處, 於此審之, 則知內外未始相離, 而所謂莊整齊肅者, 正所以存其心也.”

하게 하면 저절로 자신을 잃음이 없고 사람과 대응하여 절도에 맞게 되는 表裏의 일치를 제시하고 있다.²⁸⁾ 중심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밖으로 모든 현상에 대응하면서 조화를 잃지 않는 것은 곧 表裏一致하는 敬의 효과를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그는 “평소에 일이 없음은 本原[성품]을 함양하는 자리이며, 바깥은 생각하는 것처럼 정중하고, 마음 속으로 하나를 주장하는 것[主一]은 깨어있는 때[惺惺然時]”²⁹⁾라 파악함으로써, 敬이 겉과 속을 일관시키고 있음을 제시한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겉과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속은 서로 작용함으로써 일관하는 관계이므로 敬의 수양법에서는 겉과 속의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점에서 유교적 수양론의 기본 특징이 드러난다.

나아가 敬의 실천은 일회적으로 성취되는 형식적 구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단절이 없이 반복된 노력[眞積力久]을 통하여 점점 익숙하게 되어가는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마침내 본체와 응용이 융화되고 순수한 상태가 되는 극치의 단계를 제시한다.

퇴계는 “엄숙하게 涵養함을 근본으로 삼고, 깊이 침잠하여 研索함을 학문으로 삼아서, 이 道理가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으로 친절하게 體認하여, 그 사이에서 노닐고 젖어서[優游涵泳] 점차 쌓아 오래가다[積漸悠久] 보면 홀연히 녹고 깨끗해지게[…釋脫…] 된다.”하며, 이러한 경지를 ‘참소식’[眞消息]이라 밝히고 있다.³⁰⁾ 이처럼 敬은 몸과 마음을 단속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 데서 시작하여, 마침내 도리와 일치하여 자유로운 경지 속에서 완성되는 것으로서, 수양의 실천방법과 형성과정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본다.

28) <퇴계>, 24-6a (1-578), ‘答鄭子中’, “敬而無失, 涵養深厚, 而發於應接, 不敢輕易放過.”

29) <퇴계>, 28-24a (2-73), ‘答金惺紱’, “平居無事, 是涵養本原地頭, 外儼若思, 中心主一, 惺惺然時也.”

30) <퇴계>, 26-27b~28a (2-27~28), ‘答鄭子中’, “一以莊敬涵養爲本, 沈潛研索爲學, 見得此箇道理, 眞不可須臾離處, 將此身心親切體認, 得以優游涵泳於其間, 庶積漸悠久之餘, 忽然有融釋脫灑處, 便是眞消息也.”

IV. 不敬의 病狀과 治療

퇴계는 수양의 과정에서 敬의 올바른 실현을 상실한 데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病症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그 치료방법을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과 치료의 방법은 그의 수양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持敬은 마음의 온갖 병에 대한 약이 되는 것이요, 한가지 병증에 대한 한가지 처방[劑]이 있는 것에 비유될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³¹⁾

특히 思索이 자세하고 察識이 정밀하더라도 持敬을 진실하게 깨닫고 실행하지 못하면, 자신이 노력하는 자리와 聖賢의 言動이 서로 어긋나고 의심스러워지며, 앞으로는 도리어 견주어보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명백하게 의거하여 곧바로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게 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미세한 공부를 해도 끝내 곤란이 모여들고 노력에 효과가 없어서 老·佛으로 변전하게 되기도 함을 경계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주자의 말을 빌어 ‘마음을 붙잡아 간직함[操存]을 이 病狀에 대한 약으로 제시하고 있다.’³²⁾

퇴계가 마음의 病狀으로 가장 깊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분산하고 조급한 병과 고요함[靜]에 빠지는 병이다. 그는 ‘마음이 분산하고 동요되는’[心之紛擾] 증세에 대해서는 主靜 [習忘] 이 아니라 敬을 지킴 [持敬]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됨을 지적하며, 행동하자 곧 잘못을 저지르는 ‘조급하고 경망스러운 병’은 주자의 견해를 따라 敬을 실천하지 않은 병으로서 마음이 사물을 主宰할 수 없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 진단하고, 이 병에 대해 ‘마음을 일치시켜 분산되지 않게 할 것’을 약으로 처방한다.³³⁾

31) <퇴계>, 29-13a (2-93), ‘答金而精’, “警之治病, 敬是百病之藥, 非對一證 而下一劑之比, 何必要求對病之方也.”

32) <퇴계>, 28-26b (2-74), ‘答金惇紱’, “前隙徒有比較指擬之煩, 未有明白可 據 直進前之意, 此學問之大本, 於此不得, 則雖有零碎工夫, 難湊泊, 勞而無功, 或轉入釋老去矣.”

그는 ‘마음이 부산스럽게 달리고 제멋대로 날아오르는’[心之馳驚飛揚] 증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도 이러한 증세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붙잡거나 급박하게 억제하려 들면 도리어 병을 생기게 할 것임을 경계한다. 이에 따라 생각을 너그럽게 하고 폭 젓어들게 하여 깨어있는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도록 처방하고 있다.³⁴⁾ 이러한 敬의 실천에서는 번잡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데 빠지면 禪佛敎나 老莊에 기울어지는 것으로 경계하고 있다.

그는 생각이 많은[多思索] 해독이 배우는 이의 공통적 근심이라 지적하고, 마음이 번잡하여 소란하며 특히 편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正養하는 공부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 여기서 正養공부는 고요함[靜]을 의미하는데 그 방법은 孔·孟·周·程과 龜山(楊時)門下 및 주자에 의해 제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靜이 한번 지나치면 禪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靜보다 敬을 강조하게 된다. 그것은 主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博約의 번거러움을 싫어하여 動이 없이 靜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제시한다.³⁵⁾

마음의 병은 기본적으로 고요함이나 활동의 어느 한 쪽에 빠지는 병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일이 없을 때’ 마음을 간직하는 방법이 한편에서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생각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고요함[靜]에 빠져 활동[動]이 없고자 하는 것이요, 다른 한편에서는 ‘생각을 한번도 그치고자 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은 활동[動]에 치우쳐 고요한[靜] 때가 없는 것이라 하여 動·靜 이 분리되어 한 쪽에 치우친 공부의 병폐를 지적한다. 바로 이러한 태도는 주자가 말한 ‘항상 잠들어

33) <퇴계>, 39-24b (2-297), ‘答洪胖’, “今君患心之紛擾, 不以持敬爲 治病之藥, 乃以明道所斥之說.” <퇴계>, 29-11b (2-92), ‘答金而精’, “聞之, 何叔京問於朱先生, 自謂有躁 妄之病, ---先生答曰, 所以有此病者, 殆居敬之功未至, 故心不能宰物, 氣有以動 志而然耳.”

34) <퇴계>, 36-26 (2-238), ‘答琴聞遠’, “不可強力把捉, 亦不可急迫制縛, 如此則非但無成, 必至生病, 須寬著意思, 優游涵泳, 而惺惺主人, 常不失照管.”

35) <퇴계>, 28-28b~30a (2-76), ‘答金而精’, “非以主靜爲不可也, 然亦不當厭 博約之煩, 而塊然以主靜.”

깨지 않거나, 항상 행하며 그치지 않는 병[常寐無覺常行不輟之病]이라 하여, 그 옳지 않음을 지적한다.³⁶⁾

또 하나 마음의 중요한 病狀은 마음 속에 생각이 얽혀서 풀리지 않는 현상이다. 그는 착한 생각이나 마땅한 일이라도 마음 속에서 풀리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한 덩어리의 사사로운 생각[私意]이 되는 것이라 파악한다. 따라서 반드시 天理로 흔적없이 융화시켜야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이 마음 속에 남아서 방해가 된다 하여 일을 싫어하고 잊으려하며 활동을 싫어하여 고요함에 빠져 있으면, 老佛의 무리가 빠져 있지만 한 것이 아니라 儒學者도 털끝만큼의 착오가 있으면 망각과 고요함의 병에 빠지게 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³⁷⁾

또한 그는 敬의 기본성격인 主一과 사물의 변화에 대응하는 主事를 無事時와 有事時로 대응시키고 있다. 주자의 ‘答呂子約’에서는 “主一은 ‘專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이 없으면[無事] 담담하며 안정하고 고요하여 활동으로 나가지 않으며, 일이 있으면[有事] 그 일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일로 나가지는 않는다. 여기서 主事は 主一에 일치할 수도 있지만, 만약 얽매임의 私意在 있으면 일이 지나갔는데도 마음이 잊지 못하기도 하고, 몸이 여기에 있는데도 마음은 저기에 있는 ‘산란하여 멋대로 함’이 되어 主一無適과 상반되게 된다.”고 파악한다.³⁸⁾ 따라서 敬의 主一을 실현하는 방법에서는 한 가지 일에 오로지 대응하면서 다른 일을 생각에 남겨두지 않고, 다른 일에 옮기면 지난 일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비우고 순수함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수양의 기본방법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제기하고 있다. 퇴계는 ‘이치의 탐구’와 ‘경의 실천’이라는 두 가지 공부방법이 서로

36) <퇴계>, 28-24a (2-73), ‘答金惇紱’, “今論無事時持心之法, 一要常惺惺而遺去思慮, 是一於靜而欲無動也, 一要未嘗息念而不替其窮理, 是偏於動而無靜時也.”

37) <퇴계>, 28-3 (2-63), ‘答金惇紱’, “夫罪已責躬, 是乃善端之發, 非私意也, 然此一事橫在肚裏而不釋, 則亦同歸於私意吝習, 必須天理融和無痕, 然後心得其正矣.”

38) <퇴계>, 28-19a (2-71), ‘答金惇紱’, “若是有所係戀, 却是私意, 必有事已過而心未忘, 身在此而心在彼者, 此其支離畔援, 與主一無適, 非但不同, 直是相反, ---以爲一可以御萬, 萬不可以命一, 故心能主宰專一, 則有不待思而能隨事 中絕.”

방해되는 현상에 대해서 敬의 실천이 미숙하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써 敬을 실천해 가면 과일이 익어 맛이 들듯 서로가 방해되지 않고 조화·일치됨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의 지속적인 축적이 없으면 마치 씨뿌리지 않고 김매지 않은 채 밭에서 곡식이 익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공허함을 지적한다.³⁹⁾ 이처럼 敬의 확고한 실천과 그 실천의 원숙함이 마음에 일어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 방법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V. 맺는말－特性과 意義

퇴계의 수양론은 敬을 핵심개념으로 하며 그의 학문방법론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는 聖人을 지향하는 인격형성의 출발에서 聖人을 성취하는 종결까지 敬의 수양론을 일관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는 마음이 대상세계의 무한한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의식의 분산을 억제하며, 욕망을 제어함으로써 天理에의 일치를 추구하는, 主一無適의 긴장된 집중을 실현한다. 敬은 고요할 때나 활동할 때를 일관하는 것으로서, 한가할 때 마음을 간직하고 성품을 배양하는 存養과 활동할 때 행동의 기미를 살피는 省察의 양면이 요구된다. 또한 敬에는 내면의 마음과 외면의 모습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겉으로 드러난 반듯한 모습의 整齊嚴肅과 내면에서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인 常惺惺法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자의 ‘敬齋箴’에 제시된 敬의 기본구조로서 퇴계에 있어서 敬의 수양론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체계라 할 수 있다.

그는 敬의 실천방법에서 단계적 과정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한다. 動·靜과 表·裏를 포용 조화하여 고요할 때 앉는 자세로서 靜坐나 활동할 때 글씨 쓰는 寫字의 자세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일치되고 엄숙함이

39) <퇴계>, 29-5a (2-89), ‘答金而精’, “到那熟時, 始可以無妨碍之病, 然於克復存養之功, 不能眞積力久, 而欲望到熟處, 何異不種不耘, 而望田之有熟乎.”

실천된다. 이러한 敬의 실천은 마음과 행위의 평면적 상태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의 축적을 통해 순수하게 익숙한 상태로 성숙시켜 가기를 요구하고 있다. 곧 敬은 수양론에서 인격형성의 과정을 중시하며 인격적 이상의 성취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퇴계는 敬의 상실에서 오는 마음의 病을 진단하며 치료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격형성의 치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마음이 번잡함이나 고요함의 한 쪽에 치우치는 병폐와 얽매이고 분열하는 病狀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하고 持敬의 일관된 수양법을 치료의 藥으로 제시함으로써, 마음의 부정적 작용에 대한 대응방법을 치밀하게 확립한다.

이러한 그의 유교적 수양론은 과도한 욕망의 개방과 사물의 자극으로 황폐화하고, 가치의식의 분열과 이념의 갈등으로 혼미에 빠진 현대인의 정신질병을 치료하는 데 유용한 대응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유교적 이상이요 인간의 보편적 요구로서 인격적 가능성의 계발과 인간의 품위를 향상시켜 가는 데 있어서 敬의 수양론은 우리 시대에서도 유의한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